

문학(文學)의 성격(性格)과 시대(時代)

문학은 인간생활의 표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생활은 늘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그 긴장과 이완의 도(度)와, 사상·감정·상상 등 그 구성요소의 균형의 양상이 다르다. 그리고 생활의 긴급과, 이완의 도와, 균형의 도가 변화함에 따라 작자의 정신도 또한 그 긴완(緊緩)과 균형이 변화되어, 작자의 소재로서의 생활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구성하는 제작수법이 달라진다. 이리하여 문학은 시대상에 의하여 그 성격이 결정되며, 이런 한에 있어서 문학은 시대의 아들이다.

문학의 성격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통 고전적, 낭만적, 사실적, 이 세 가지 어구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어구들은, 사람에 따라 동시대적 문학작품의 성격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각 시대의 작품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여 그 용도가 대단히 혼란되어 있는 데다가, 각 개인에 따라 그것들에게 내포시키는 의미조차 일정하지를 못하여, 그 개념에 있어서 애매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학의 현실적인 성격을 명료히 포착하려는 노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의미와 적용을 엄밀히 규정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이해의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나는 이 개념들을 동시대

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각 시대의 작품의 성격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또 그것들의 의의를 더욱 엄밀히 규정하기 위하여 문학사상의 고전주의 시대를 3기로 분하여 제1기를 에스킬레스와 소포클레스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소포클레스 시대로, 제2기를 시세로와 버질로 대표되는 로마(羅馬)의 후공화국 시대 및 오거스티스 시대로, 제3기를 코르네이유, 라신느, 몰리에르로 대표되는 불란서 루이 14세 시대와 드 라이든과 포우프로 대표되는 영국의 18세기 전반기로 하며, 낭만주의 시대를 워즈워드, 코울리지, 셸리, 키츠 등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19세기 초두로, 사실주의 시대를 19세기 후반으로부터 현금까지의 시기로 한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는 유리피데스에서나 12, 3세기의 <오카생과 니콜레트>,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의 작품에서도 낭만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며, 멀리 호머의 <오딧세이>나 <일리아드>며, 문예부흥기의 작품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실주의적 특징을 볼 수 있으나, 문학의 시대적 성격은 그 성격이 가장 뚜렷이 발현한 시대에서 그 궁극적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또 이 궁극적 양상을 시대적으로 고찰할 때 문학의 성격과 시대와의 관련이 명확히 이해되는 것이므로, 그런 작품시대는 일일이 고찰의 범위에 넣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괴테나 셰익스피어가 고전적이나 낭만적이나든가, 영국의 낭만주의와 불란서의 낭만주의와의 사이에 어떠한 차이(差違)를 볼 수 있느냐든가, 19세기 중엽 이후 금일까지의 문학은 결국 사실주의 문학이나, 그동안에도 고전주의와 사실주의의 동시대적 기복이 있었다는 것 등도 또한 나의 관심의 범위에 들지 못한다.

브뤼네티에르는 고전주의 문학은 모든 기능의 완전한 평형과, 국어의 완성과, 국민적 독립과, 예술의 장르의 완성과, 흥취의 광범 등 다섯 가지 조건이 예비된 곳에 비로소 발생하는 문학이라고 하였다. 페리클레

스 시대가 그랬고, 오거스티스 시대가 그랬고, 루이 14세 시대가 그랬다. 서양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들이야말로 가장 도덕적, 정치적, 이지적 진보를 성취한 시대였다. 다시 말하면 진보와 성취의 확신이 전 사회에 침투되고, 포용적이며 합리적인 인생관이 전체적으로 확립되었으며, 이런 시대정신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언어와 예술형식이 성숙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자기의 사회가 그와 같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균형과, 확신과, 분별과, 이지가 완전히 성숙하여 상상이 이지에 앞서는 일도, 논리가 상상을 억압하는 일도 없고, 정서가 분별을 흐트러 놓는 일도 분별이 정열을 침범하는 일도 없고, 또 내용이 형식을 어지럽히는 일도 형식이 사념을 위축시키는 일도 없었다.

고전주의 작품은 실로 이와 같은 시대의 산물로, 그 시대에 있어서는 작가와 시대의 호흡의 장단이 일치하고 작자가 생각하는 것과 시대가 생각하는 것이 또한 완전히 부합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자는 자기의 호흡과 사념이 시대의 그것과 어긋나지 않는 사실을 확호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고전주의 문학의 특색이 발현해 온다.

고전주의 문학의 최대의 특색은, 그 작품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번 생각되었으나, 이렇게도 적의(適宜)하게 생각된 일은 없었다는 느낌」(포우프)으로서, 이 성취감이야말로 자기확신적인 그 시대정신의 반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자기확신은 또 그 시대의 이지적 종합, 통일적 성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전주의 작품이 종합의 문학이요 평형의 문학인 것도 진실로 이곳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주의 문학은 성취와 평형과 종합의 문학이므로, 그것에서 오는 미는 건축적이며 형태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건축적 형태미를 가장 농후하게 갖춘 문학형식은 희곡이다. 따라서 고전주의 문학이 희곡에서 가장 풍부하게 결실

되었던 것이며, 문학은 그 형식과 장르에 있어서까지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고전주의 작품이 낭만주의 작품이나 사실주의 작품과 특이한 점은 앞에서 말한 점에도 있으나, 그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작자의 소재로서의 생활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구성하는 수법에 있다. 언제나 문학은 생활의 표현이기 때문에 고전주의 작가에 있어서도 그 소재는 역시 인간생활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재로서의 생활은 이지적으로 본 생활이며, 이성적이며 세련된 상류사회의 생활이다. 게다가 작자도 또한 그 사회의 일원이며 또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작가는 냉정한 이지적인 태도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그 사회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미 완전히 성숙해 있는 언어와 문학형식에 담으면 그만이었다. 고전주의 작품은 이와 같이 하여 제작되므로, 그 작품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 의하여도 또한 아무 의심없이 수납되고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그리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이 그런 문학작품에서 얻는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완성한 작품을 작품 그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작품 속의 생활이 곧 그들의 생활이므로, 그들의 생활을 생활 그것으로서 향락하는 데서 오는 자기만족적 유열이었다. 이에 고전주의 작가는 독자에게 오직 유열을 주기를 그들의 작품 효과로서 목적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고전주의 작품의 특징은 종합과 평형과 합리적 질서에 있다. 그런데 인간적 종합과 합리적 통일은 포용적이나 또한 한정적·배제적 일면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인간정신은 몽상과 동경이 억압되고 현세적 충동이 유폐된다. 그러나 언제나 움직여 마지않는 인간정신은 이런 억압이나 유폐에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리하여 인간정신이 심정과 상상과 동경에 있어서 이와 같이 억압되고 유폐되어 있는 것을 자각하는 시대가, 그리하여 그것들

이 쓰고 있던 질곡을 파괴하고 솟아오르는 시기가 온다. 이것이 곧 낭만주의 시대로 재래의 질곡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반항적, 파괴적, 따라서 정열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낭만주의 문학에서 우리는 성취감이란 따라서 평정과 균형이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신 낭만주의 문학에는 무한성과, 도달할 수 없는 것への 지향성과 다양성への 욕구가 있어, 그것에서 오는 몽롱과 신비의 미가 있다. 따라서 낭만주의 작품에는 유동적·회화적 미가 있다. 그런데 문학의 장르 중에서 유동성과 회화성이 풍부한 것은 시가(詩歌)다. 이에 낭만주의 문학은 시가에서 가장 찬란히 개화하였던 것이다.

낭만주의 문학에 있어서도 그 소재는 역시 인간생활이다. 그러나 이 생활은 작가가 이지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본 생활이며, 세련되고 통제된 합리적인 인간생활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고 유로되는 그대로의 인간의 감정생활이다. 그런데 낭만주의 작가는 이 소재로서의 인간의 감정생활과 자기의 감정생활과를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몽상하는 것이 곧 생활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또 그대로 문학작품이 된다고 믿는다. 이에 그는 문학상의 규칙과 형식에서 절대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며, 독자에게도 오직 자기와 같은 형식으로 같은 내용의 꿈을 꾸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으로 작자의 꿈은 현실에서 너무나 유리(流離)하게 되며, 끝내는 독자를 자기와 같은 꿈속으로 인도하려던 작품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만다.

이에 현실에서 너무나 이탈하기 쉬운 사실주의 문학이 발생한다. 이 문학의 가장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발생과 성숙은 19세기 이후 현금까지의 시기에서이다. 이 문학의 특질은 정감의 횡일(橫溢)에 대한 이지적 정리와 몽상에 대한 현실적 각성에 있다. 그런데 사실주의 문학의 이런 특질도 또한 시대정신을 통하여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기 중엽 이후로 우리를 강렬히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실증적·실험적 과학사상이다. 이상보다도 현실을, 주관보다도 객관을, 시적 망상보다도 이지적 사색을 존중하는 사상이 곧 그것이다. 따라서 이 사상에 있어서는 개인을 전체로, 개인적 생활을 집단적 생활로 확대하여 개인을 적나라한 전 인간성에서, 그리고 개인적 생활을 집단생활의 양상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이에 이런 시대사상의 산물인 사실주의 문학은 인간생활의 전체적 집단생활을, 고전주의 문학과 같이 정적인 영원상에 있어서나 낭만주의와 같이 유동적 전변상(轉變相)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물적 특성에 있어서 표출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실주의 작품 속의 생활은 사회 전체의 생활이요, 어떠한 원리 하에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생성하여가는 생활이다. 생활을 이와 같은 양상에서 묘출(描出)하려 하므로 사실주의 작가의 태도와 수법도 또한 고전주의 작가나 낭만주의 작가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실주의 작가는 고전주의 작가와 같이 생활을 이지의 눈으로 본다. 그러나 고전주의 작가의 이지는 종합하고 통일하는데, 사실주의 작가의 이지는 분석하고 해부한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생활을 이지적으로 처리하므로 낭만주의자와 같이 정열을 개방하지 않고 정열 그것까지도 이지 하에 통제하여 분석하고 비판한다. 이와 같이 생활을 분석하고 비판하므로, 사실주의 문학은 또 낭만주의 문학에서와 같이 문학적 규범을 무시하여 플롯이 혼란한다. 그러나 사실주의 문학은 낭만문학과 같이 생활을 개성적 유전상(流轉相)에서 표출하려 하지 않고 전체적 발전상에 표출하려 하므로 중후미와 가촉성(可觸性)을 띠며, 이와 같은 성격을 가장 잘 갖춘 문학형식으로서 묘사적 소설형식을 새로이 수립하였다.

사실주의 작품은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근 1세기 동안에 많은 변모가 있었다. 더욱이 전번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주의가 개인심리적 양상에서 심화되고 다양화한 것을 우리는 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글의 두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사상 대표적인 유파를 그 현저한 성격에 있어서 그 시대정신과의 관련되는 점을 구명하여 보려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었으므로, 유파의 이런 내부적 성격의 변천과 제유파의 동시대적 교류에는 나의 고찰을 미치지 않았다.

《문장》, 2권 1호, 1940. 1. 1)